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마음열기

어떤 스승이 다가오는 축제일에 입으려고 맞춘 새 저고리를 제자들을 보내어 찾아오게 했다. 제자들이 옷을 찾으러 방문하자 재단사는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 저고리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신께서 보우하사 저고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재단사를 찾았다. 재단사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신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신다면, 선생님 저고리가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 주에 또 제자들이 찾았을 때도 저고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재단사는 ‘내일 다시 오시죠. 신의 축복이 있다면 새 저고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 스승에게 그 말을 전하자, 그들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재단사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신이 돕지 않으시면 저고리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스승은 제자들에게 새 저고리를 찾으러 재단사에게 보내지만, 재단사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핑계를 댑니다. “신이 도우신다면”, “신께서 보우하사”, “신께서 광명을 주신다면”... 겉보기엔 경건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노력하지 않으려는 변명이었던 것이죠. 혹, 당신 가운데 위 재단사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피하거나 미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언제 그러고 싶은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아래 글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 A교회와 B교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친선 축구대회를 연다. 친선으로 시작된 축구시합은 해가 거듭될수록 두 교회의 승부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올해도 여전히 축구시합이 열렸다. 두 교회는 모두 축구시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A교회는 B교회를 이기게 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B교회는 A교회를 이기게 해 달라고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시합을 준비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할까요?

- C대학에 다니는 미혼의 아름다운 K씨, 그녀는 못 남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다. 특별히 C대학 안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신학생들은 저마다 K씨에게 와서 고

백을 하게 된다.

I군: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의 짝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J군: "당신을 위해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L군: "당신을 위해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당신이 내 평생의 짝이라는 예언을 듣고 왔습니다."

M군: "하나님은 당신이 내 짝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K씨는 과연 어떤 남자와 사귀고 결혼해야 할까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출애굽기 20:7

개역개정 :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개역개정)

쉬운성경 : 7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표준새번역 : 7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성경 : 7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 :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7에 소개된 십계명 제3계명의 성경의 다른 버전입니다. 각 버전별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출애굽기 2:2-3은 십계명 제3계명에 소개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or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or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2. 아래 내용들에 대해 체크한 후 아래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나는 다른 사람을 나의 요구에 맞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누군가에게 거절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에게 대신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뒷받침하려고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뭔가 필요할 때 만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내 말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당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yes, no)
- 나는 하나님을 들먹이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적이 있다.(yes, no)

🗨 위 내용들 중 당신이 yes라고 선택한 것들 중 구체적인 예를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예: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어떤 태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한 적은 없나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농담, 욕설, 위선 등)

 **마태복음 6장** 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10절)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10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적용과 결단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내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 모임, 교회 등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